

빛에서 빛으로

기윤실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안내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부 빛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웃에게 꾸어주는 자는 복되다 _4

빛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 무이자 대출 _6

빛에 지배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 : 면제, 탕감 _8

하나님 나라,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_10

2부 청년에게 희년을,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들의 빛, 심각한 문제 _12

청년부채 Zero 캠페인 _14

현금으로 - 청년에게 희년을, 청년에게 희망을 _16

운동의 흐름 : 기운실이 이어받기까지 _18

발행일 | 2018년 2월 26일

발행인 | 백중국

편집인 | 정병오

편 집 | 박제민 최진호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1부

빛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 기윤실이 주최한 '2017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11.9)에서
김근주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1. 이웃에게 꾸어주는 자는 복되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신명기 15:7-8)

성경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의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다른 이에게 ‘꾸어 주는 삶’이며, ‘꾸어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요청을 따라 꾸어 주는 것은 “의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가난한 이웃에게 꾸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복 받은
삶이며, 여호와께 꾸어준 것이기에 여호와께로부터
갚음이 있는 복을 불러오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곤경에 빠졌는데 그 어느 곳에도 돈을
융통할 수 있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이고 외적인
표현입니다.

1-2. 빛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 무이자 대출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22:25)

대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거의 유일한 살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권장된다.

이런 경우에 이자를 받는다면 상대의 곤경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자 금지법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 규정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레위기 25:37)

성경은 아예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무이자 대출은 서로가 형제이며 함께 연대해야 함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고대 다른 나라에 없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별함은 무이자 대출로
구체화됩니다.

1-3. 빛에 지배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

: 면제, 탕감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명기 15:2)

신명기 15:1-11은 매 칠 년 끝마다 빛을 탕감하는 면제년을 규정합니다. 어떤 빛이 얼마나 있었든지 면제년이 되면 모든 빛에 대해 면제가 선포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면제년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데도 돈을 더 빌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대해 면제년을 이유로 선뜻 빌려주지 않으려는 이들에 대해서만 경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이러한 경고 규정의 존재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서로의 곤경과 필요를 보충하고 메우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로 연대하며 서로 지탱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면제년은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7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면제년이 신학적 중요성을 지닌 조치임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의 반복을 통해 새 출발을 제도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의 7년 후에 오는 희년 역시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면제년과 희년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를 구체적 사회 제도를 통해 구현합니다.

1-4. 하나님 나라,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성경은 이자 받지 말라는 규정으로 빛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반복되는 면제년을 통해 빛에 지배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은 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면제년으로 대표되는 제도가 그 사회 내에서 실천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돈을 꾸어 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나라, 정기적으로 빛이 탕감되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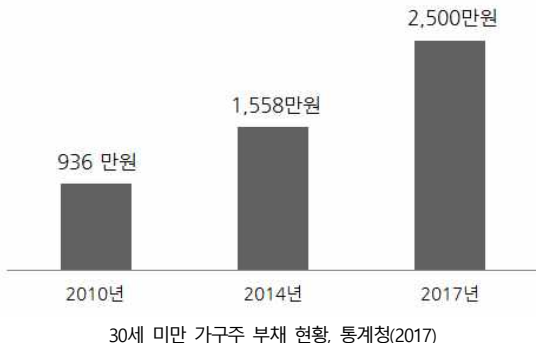
성경이 명확히 촉구하는 것은 서로 연대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모두의 문제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2부

청춘에게 **희년**을

청년에게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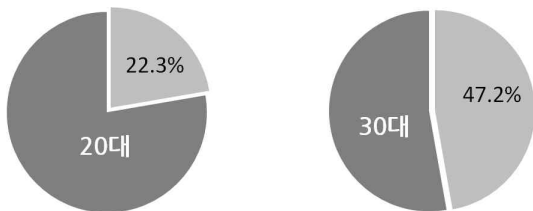
2-1. 청년들의 빚, 심각한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높아진 생활비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빚진 액수도 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8만 명에 이르고,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이자(신용불량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문턱이 높아 신용이 낮은 청년들에게 (저금리)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충동률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결국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20대 22.3%, 30대 47.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왜 돕나요?

- ✓ 청년들이 빛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값을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 ✓ 빛으로 인해 고립되어 가난한 사람을 살던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자립하게 합니다.
- ✓ 교회는 청년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그
 자체로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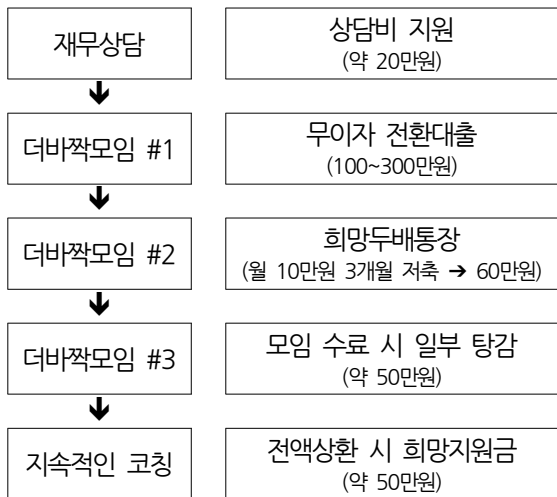
누구를 돕나요?

서울시, 경기도에 사는 20~35세 사람 중에서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입니다.



- ①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② 고금리 부채
- ③ 다중채무
- ④ 그 외 채무상담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통해 돕나요?



- * 재무상담은 청년들에게 특화된 재무컨설팅 단체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 * 더바짜모임(더 바르게 소비하는 짝공들의 모임)은 재무교육을 진행하고, 상환계획을 세우며,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합하게 하는 모임입니다.

2-3. 헌금으로

청춘에게 희년을, 청년에게 희망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신명기 15:11)

그동안 청년부채Zero캠페인은 여러 기부금과 교회의 헌금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차는 영화 ‘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이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해주었고, 2차는 높은뜻푸른교회가 헌금해주셨으며, 3차는 동작신협에서 기부를 받아 빚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12)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17년 향상교회에서 부활절 절기헌금을 후원해주셔서 부채해방컨퍼런스와 부실채권소각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권합니다. 청년부채Zero캠페인에 여러분의 헌금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94-6200)

운동의 흐름 : 기윤실이 이어받기 까지

2012년 11월, 미국에서 장기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한국에서도 한국판 롤링 주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희년함께’를 중심으로 2015년 4월, 8개 단체*가 연합해 청춘희년운동본부를 만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춘희년운동본부는 2016년 6월,
청춘희년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꿉니다

* 희년함께, 청어람ARMC,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음과상황,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후에 푸른나눔, 민생네트워크 새벽이 합류함. (하파타 순)

한편, 위 운동에 연대단체로 참여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5년부터
양극화해소 운동을 진행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운동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춘희년네트워크의 제안을 받아 2018년
2월부터 기윤실이 청년부채 Zero 캠페인의 주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윤실은 그동안 운동의 흐름을 기억하고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신명기 15:4